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알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회개하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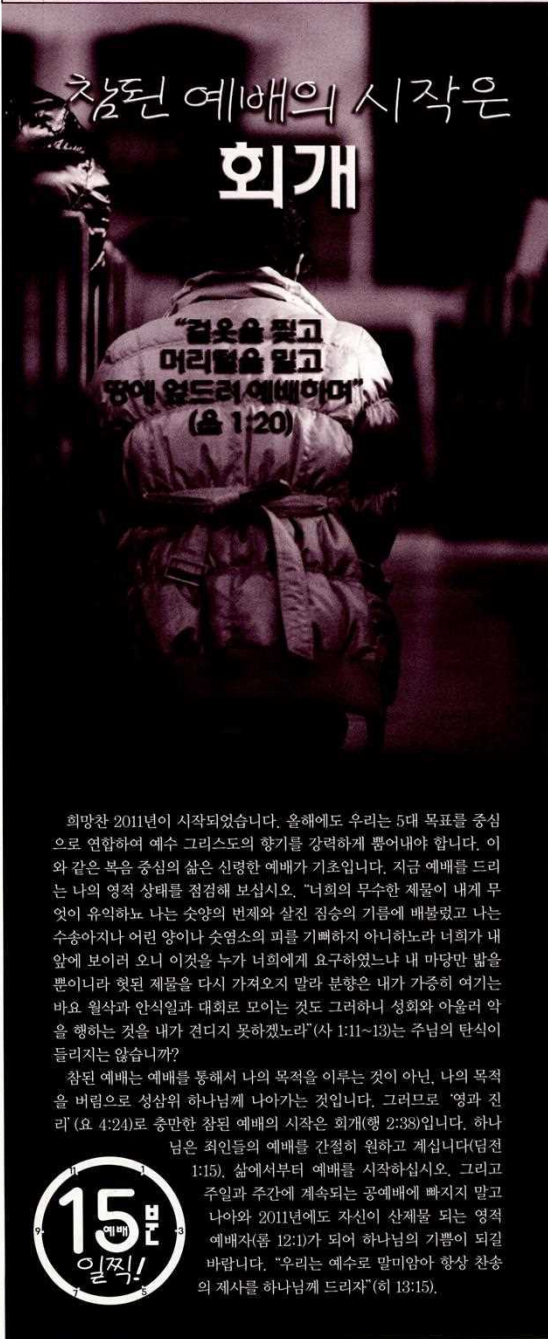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용



창립된 예배의 시작은 회개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와
복귀와 공백 기간

역사적인 예언은 이루어졌다. 바사왕 고레스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한 것이다. 고레스는 모든 포로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다(스 1:2~4).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하였다. 고국으로 돌아온 42,360명의 유대인들은 폐허뿐인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목격했다(스 2:64 ; 느 7:66). 예루살렘의 재건을 시작했지만 모든 상황은 어려워져 곧 중단되고 말았다(스 4:16~17, 21~22). 그러나 포로가 된 후에 나타난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용기와 격려로 성전은 마침내 BC 515년에 재건축되었다.

기원전 5세기에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방종과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였다.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나타났다.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종교예식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였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세우는 일을 마치고 거민들에게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된 듯한 통일성과 위엄도 회복시켜 주었다(느 8:5~6, 9~10). 느헤미야는 공식적으로 바사의 총독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자로서 에스라가 개혁을 단행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인 후원과 권한을 에스라에게 제공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사회적, 경제적인 개혁에 가담하였다.

구약의 경전은 기원전 5세기 중반에서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로 끝이 난다. 그러나 유다는 마태복음에서 보는 계보처럼 이어져 간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유다는 두 번의 다른 개혁의 통치를 거치게 된다. 처음에 바사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이후에 알렉산더가 이끄는 회람제국의 식민통치를 당한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회람제국은 애굽의 프톨레미(Ptolemy)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Seleucid)가 지배하였다. 이들의 강압적인 통치에 따라 유다는 점점 회람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도록 압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세우는 신성모독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마카비우스 중심으로 저항운동을 하였다. 그 후 한 세기 동안 유다는 비교적 자치적인 체제에 들어가고 헤스모니안 왕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는 회람이 로마의 정권으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되며, 2세기와 1세기 동안에 전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점점 그 영향력을 넓혔다.

63년에 폼페이 밑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하여 길고 긴 로마의 지배가 유대인에게 일하였다.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눅 2:1, 4~5). 이렇게 해서 마태가 말하며 주는 계보는 여기에서 끝이 난다(마 1:1).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토라에 기록된 율법에 점점 더 현실하는 유대인들이다. 이것은 가장 신실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최고의 표시가 되었다. 두 번째는 급격하게 일어나는 종말적인 메시지를 기다리는 소망이다. 핍박이 계속되고, 순교자들이 많아지고, 고난이 점점 심하여 갈수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마지막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점점 강하게 발전되었다(마 59:19~21, 62:11~12).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며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마 3:3~5, 4:14~17).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하심을 세우기 시작하신 것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희망찬 201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력하게 뿜어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 중심의 삶은 신령한 예배가 기초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며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취히 여기는 바요 율사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사 1:11~13)는 주님의 탄식이 들리지는 않습니까?

창립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닌, 나의 목적을 버림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요 4:24)로 충만한 창립 예배의 시작은 회개(행 2:38)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예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딤후 1:15). 삶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일과 주간에 계속되는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아가고 2011년도에 자신이 산재를 되는 영적 예배자(잠 12:1)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히 13:15).



COME LET US WORSHIP

- ⁽¹⁾O come, let us sing for joy to the LORD, Let us shout joyfully to the rock of our salvation.*
⁽²⁾Let us come before His presence with thanksgiving, Let us shout joyfully to Him with psalms.
... ⁽⁷⁾For He is our God, And we are the people of His pasture
and the sheep of His hand. Today, if you would hear His voice,
⁽⁸⁾Do not harden your hearts, as at Meribah, As in the day of Massah in the wilderness,
(Psalm 95:1~8)

Today, if we hear God's voice, let us not harden our hearts. Let us not enjoy our pride or become stiff-necked by holding on to our ways. Instead, let us be humble before the Lord with glad hearts. As believers, our need to worship the Lord God is vital. Individual worship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Christian life, and not just for Sunday's gathering but every day. It's true that we enrich our time of worship by being near or inviting others to join us, but whether we're alone in our home or sitting amongst many in church, we need to worship. Today's Bible verses explain how we should come to the Lord and worship.

We should worship the Lord with music and singing, "O come, let us sing for joy to the Lord, let us shout joyfully to the rock of our salvation"(Ps. 95:1). Music and singing have always been an important part of worship. The key is to play your instrument or sing with your voice with all your heart. When you play or sing to the Lord that song tells the story of your changed life and deep dedication. Joyful playing and singing honor the Lord. Worship songs focus on the Lord God, especially concerning His cross, resurrection, and coming. Did you know that all God's children will worship Him in song even when they get to heaven? Revelation 5:9-10 tell us, "And they sang a new song, saying, 'Worthy are You to take the book and to break its seals; for You were slain, and purchased for God with Your blood men from every tribe and tongue and people and nation. You have made them to be a kingdom and priests to our God; and they will reign upon the earth.'" Revelation 5:13 shows how all creation will join in praise to God and the Lamb, "And every created thing which is in heaven and on the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on the sea, and all things in them, I heard saying, 'To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be blessing and honor and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When we worship, let us focus on the miracle of our personal salvation. Please don't play or sing music to the Lord without a sincere heart.

We should worship the Lord with thanksgiving, "Let us come before His presence with thanksgiving. Let us shout joyfully to Him with psalms"(Ps. 95:2). When you worship, do you worship with thanksgiving in your heart or just out of duty? Thanksgiving flows from a grateful heart. Remembering God's provisions promotes thankfulness. Christians should be constantly aware of God's blessings. How often do my ears hear people talking about how come God did this or that, instead of talking about their thankfulness! Honestly, thankfulness leads us to worship our Provider. Giving worship increases our contentment in thanksgiving,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Phil. 4:4). Where's your gratitude? "Therefore as you hav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in Him, having been firmly rooted and now being built up in Him and established in your faith, just as you were instructed, and overflowing with gratitude"(Col. 2:6-7). Praising God for His personal blessings is easy,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ne of His benefits; who pardons all your iniquities, who heals all your diseases;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who crowns you with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 who satisfies your years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Ps. 103:1-5). We can't worship and worry at the same time,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1 Thes. 5:16-18). True worship turns our thoughts to praise, and it erases the negatives in our life. Thanksgiving has great curative power. Please don't worship the Lord without sincere appreciation.

We should worship the Lord with reverence, "For the Lord is a great God and a great King above all gods, in whose hand are the depths of the earth, the peaks of the mountains are His also. The sea is His, for it was He who made it, and His hands formed the dry land. Come, let us worship and bow down, let us kneel before the Lord our Maker"(Ps. 95:3-6). Whom do you worship? The Creator God deserves our respectful reverence. Humility in worship honors the Lord. All adoration of the Lord is to be humble; we must come joyfully but not proudly. We are in His presence as familiar children before their father, yet reverent creatures before their Maker, "For He is our God, and we are the people of His pasture and the sheep of His hand. Today, if you would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as at Meribah, as in the day of Massah in the wilderness"(Ps. 95:7-8). We can always rest assured that the Lord our Shepherd guides, protects, and provides for our every need. God's grace is amazing! Please don't worship the Lord without great admiration and the highest of respect.

My dear friends, listening is also important in worship. What is God saying to you right now? Hear the words of David's psalm, "But as for me, I shall sing of Your strength; yes, I shall joyfully sing of Your lovingkindness in the morning, for You have been my stronghold and a refuge in the day of my distress. O my strength, I will sing praises to You; for God is my stronghold, the God who shows me lovingkindness"(Ps. 59:16-17). Obey His command to come now and worship Him with wonderful music/singing, thanksgiving, and reverence. Pray for God to soften your heart for worship. Amen. 

오라 우리가 경배드리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트리바에서와 같이

또 풍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 95:1~8)



김성완 목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자신의 심령을 가볍게 하십시오.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몸이 굳은 자와 같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만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성도로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 드려야 합니다. 주일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각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거나 혹은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시간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에서 많은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 예배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께로 나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는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로 주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 95:1).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는 항상 경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전심으로 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연주하거나 노래를 할 때 그 찬송은 여러분의 변화된 삶과 온전한 헌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쁨으로 연주하고 노래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배 찬송들은 주 하나님, 특히 그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서도 주님께 노래하며 경배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5:9~10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13은 천국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떻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것인지를 보여 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바다 아래와 땅 위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진심이 없는 연주나 노래를 주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 95:2).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드리십니까? 감사는 감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일은 감사의 마음을 더욱 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종종 나의 귀는 감사에 대해서 듣는 것 대신에 하나님만이 일 또는 저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진실로 감사는 우리의 창조주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경배 드림은 우리를 감사하게 하여 우리를 흠

족하게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4). 어디에 여러분의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6~7).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들을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 103:1~5). 우리는 경배와 걱정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참된 경배는 우리의 생각을 찬양으로 바꾸어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치유력이 있습니다. 참된 감사가 없는 경배를 주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경배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겸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 95:3~6).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배에서의 겸손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만을 버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앞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창조주 앞에 공손한 피조물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트리바에서와 같이 또 풍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 95:7~8). 우리는 항상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매일 채워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제발, 진심어린 찬사와 최고의 경의가 없는 경배를 주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듣는 것은 예배에 있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시편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시니이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임이시니이다” (시 59:16~17). 지금 나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주와 노래, 감사와 경배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

2011년,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이루기 위해 자기부인의 확실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 경(집사, 18교구)

✧ 세상 일에

바빠 주님을 잊어버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2011년에는 순간순간 주님을
느리며 살고 싶습니다.

김경숙(경야부)

✧ 중매교회

온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새매 소망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희(대장부)

✧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약속으로서 매야 할
공부도 성실이 할 수
있도록, 한해(교동부)

✧ 말씀 위에

듣듯이 세워져 가는
중매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문우석(만수집사, 21교구)

✧ 세상이

오만하여도 매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아여 주소서.

김미영(집사, 칠백가부)

✧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김금희(집사, 17교구)

✧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 충만함
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
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주님께서 통치하여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박 경(집사, 7교구)

✧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
행함으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병순(집사, 14교구)

✧ 2011년

한 해 주님의 사랑을
느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사랑부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이
계속 양성되길.

홍희원(집사, 사동부)

✧ 십자가

보혈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오직 십자가 복음과 재림 예수님을
전하시는 목사와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소원을 갖게 됩니다. 주님! 저는
복음에 빛난 자입니다. 나의 삶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김영희(집사, 16교구)

✧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
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새
매에는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에서
주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인영(만수집사, 12교구)

✧ 금년 한 해

예배다부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맘과 정성을 모아 예수님만 섬기고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해 단기 선교
를 다녀온 방글라데시, 라오스 농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농교회가 세워지기를 기
도하며, 계속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금년부터 시작할 성경쓰기에
모든 농자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복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소서.

김영미(집사, 예배다부)

✧ 성령 충만

2011년이 되었으면
충했고, 수능도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채보람(교동부)

✧ 2011년

한 해는 큰 일이지 작은 일이지
주님께 묻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믿음 주옵소서.
자신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부지런함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적인 기도가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정혜(집사, 9교구)

✧ 삶의

매순간 순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한 해를 소망합니다.

임금순(집사, 2교구)

✧ 새롭게

많은 구역장 직분 장
감당하게 하옵시고, 중언의
모든 성도가 전도자로서 임하게
나아가는 2011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명희(집사, 3교구)

✧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참 지혜를 깨닫는
믿음의 한 해 되게
해 주십시오.

윤성순(집사, 20교구)

✧ 한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 헌신으로
큰 나눔을 이루신 맹격처럼,
저의 작은 참여도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에도 작은 일부러 차근차근
충성하렵니다. 박문여(집사, 5교구)

2011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할
능력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허국현(영아부)

2010년까지는

주님께 세상 복을 받기 위해
또는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기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
뵈은 후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닌,
비록 힘든 십자가를 지야 하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조우성(집사, 10교구)

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규영이가 올해도 유치부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 주세요.

최수진(집권영매, 유치부)

아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아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경원(집사, 23교구)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노력하는 청년들의 몸과 마음 모두,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박대선(집사, 청년부)

2011년

안 해 동안 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 주세요.

전설희(초등1부)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최정연(초등2부)

나의

마음의 문을 가로치르고
있는 외식의 빛장을 깨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본받고 따라가는
생활에 임을 다하도록 성령의 강한
인도와 보으로 지켜 주옵소서.

김현영(집사, 15교구)

2011년에는

죄를 짓게 하고 아침,
저녁마다 기도하며 더 많은
믿음을 갖고 싶다. 저녁마다
성경책을 1장씩 읽을 것이다.

이종아(초등1부)

어들의

관계 아래 깃들었던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1년 새에도 종언의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순종하여 하시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 임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김정영(권사, 4교구)

우리 교회의

많은 젊은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세요.

최영국(안수집사, 유아부)

찬양대에서

예수님을 찬양할래요.
예수님 사랑해요.

김아연(유치부)

새로

시작하는 해,

처음 맡는 지역장 직분을
잘 감당토록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시는 힘으로 감당케 하시고,
사랑으로 따뜻한 지역이 되게 하소서.

이영진(안수집사, 13교구)

작은

외삼촌이 매우 일요일마다
고모암머니네 집에 가지 않게
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진재(초등2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모두 버리고
주님 예비하신 그 길만 순종으로
따라가는 안 애가 되길 소원합니다.

박정숙·최승준(집사, 19교구)

주님 안에서

만 가정 이루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두 사람
한 마음 되어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
며 살아가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윤주(집사, 8교구)

2011년도에는

영육이 강건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충성하는 기쁨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윤지영(집사, 1교구)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눈뜨자마자 기도로
시작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도
기도로 살고 싶습니다.

한영숙(아지영 매, 유치부)

그동안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고, 주님은 주변에
계셨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안타까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다시 주어진 2011년에는
가족과 믿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복음이 움직이는 2011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선진(집사, 24교구)

2011년에는

온 성도들이 부르짖고 구할 때에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을 들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여력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땅 끝까지 전하여 만유의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태숙(집사, 22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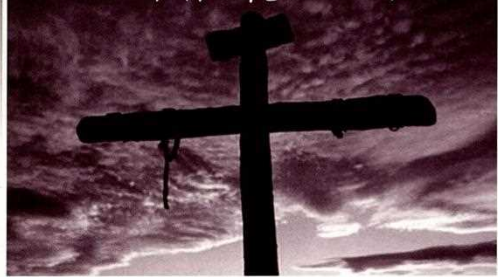
2010년에

처음 선교를 갔는데
2011년도에도 꼭 선교를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김태진(종중부)

십자가 복음

보라 (누가복음 21:25~36)



예루살렘에 임성한 예수님은 점점 제자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셨다. 사실 이 모습은 이미 구약선지자들에게 예언된 내용의 성취이기도,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종교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회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와는 전혀 관계없이 행동하셨기 때문이다. 영원한 삶이 보장된 구원보다, 유한한 삶에서의 축복과 행복한 삶을 원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환난과 인자의 오심에 대해 경고하셨다. “보라!”

● 예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장래에 관한 성경의 예언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다(벧후 1:19). 특히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이 범죄는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저주의 땅이 되게 하였다(창 3:17).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저주가 임한 것이다(롬 5:12).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죽음의 저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과 징조, 끝내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인간들은 자존심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지만, 인간들은 거짓 평화에 취해 있다(롬 8:20~23).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엡 1:13).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

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과 다르며, 새 창조가 필요하다(계 21:1).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에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 3:21).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장래에 모든 것은 변화될 것이다(고전 15:52~54).

● 무엇이 변화될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소금과 빛이 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마 5:13,16).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을 내면 멸수룩 세상은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될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기 때문이다(딤후 3:1~5).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마 24:21).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신다(살전 4:16~18).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딤후 2:13). 오직 예수님을 믿어 생명의 삶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단 12:1). 따라서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멸망의 아들(살후 2:3)이 우리 가까이 있다. 천재지변은 지금보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눅 21:25~26). 우리는 모두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반드시 처하게 될 것이다(막 13:24,31).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마 24:29).

● 인자가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막 13:26). 마지막 때에 인자는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며,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마 24:30). “보라!”(눅 21:27). 이와 같은 절정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눅 21:28). 지금까지 온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었지만 인자의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롬 8:21~22; 계 21:1).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성취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한 궁정적인 사고가 아니다. 죄로 오염되어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라!” 아멘.

메시아의 죽음 61

피땀

갓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기술한 누가의 기록을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땅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는 묘사도 그 중의 하나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묘사에 대해서, 후세들이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삽입했을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땀이 피로 변했을을 증명하려는 사람들로 나뉘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가득하다. 예루살렘의 신비로부터 출발해서 처녀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표된 것이 구약성경이고, 그 실체가 신약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의 난해 구절은 우리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한 15, 148장). 이와 같은 믿음을 전제하면 예수님의 ‘피땀’에 관해 살펴보겠다.

누가복음의 기록목적(눅 1:1~4) 중에 있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기록하여 살핀 나도”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의사였던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모든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특히 당시 의사들은 실제로 ‘피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떨어지다’라는 용어도 당시 사용되던 의학 관련 용어였다. 따라서 피땀을 떨어뜨리며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예수님의 기

술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또한 ‘빗방울 같이’에서 ‘같이’(부사격 조사)를 누가는 자주 사용하였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눅 15:19). “그들을 떠나 돌 틈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눅 22:41). “마침내의 최후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나타나 임하여 있더라”(행 2:3). 따라서 누가복음 22:44 말씀은 의심할 여지 없이 누가가 쓴 것이 분명하다.

갓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고 조금 나아가자 땅에 엎드리어 쉴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막 14:34~35). 마태도 비슷하게 기술하였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마 26:39).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더욱 세밀하게 ‘피땀’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갓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다.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에 주목할 때 ‘피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피땀’을 비롯한 난해구절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비판할 이유도, 또한 그것이 옳다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00시)에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양육부 12월 소로자 (2010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누리는 평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마음에 평화와 오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 물질에 탐하지 않겠습니다. (유경자)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알게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참 신앙 생활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며 남은 여생 부족함 없는 신앙인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찬양을 들으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안식을 찾았고 가족이 화합되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배려심이 더 생겼습니다. (윤정숙)

저는 새가족양육부에 갔을 때만 사람이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신의 돈을 때려먹은 친구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양육을 받으며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노선애)

아이 출산을 앞두고 가족 모두 함께 주를 믿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빛이요 힘이 되어 주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보혈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서희연)

주님은 항상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주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 믿음과 사랑을 느끼며 주 예수 앞에서 평화로움, 마음의 평안, 기도를 통한 자아성찰을 합니다. (김영민)

예수님은 온화하고 너그러운 분. 나를 대신하여 화생을 마신 분입니다. 교인이라는 자라 아래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화를 잘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재용)

주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술을 끊었으며 성적으로 자제했습니다. (박종호)

예수님은 최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시며 이 죄인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여유와 가족 간의 대화와 풍성한 화목한 삶이 되었습니다. (양정만)

영매가 같이 가자고 해서 억지로 찾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받은 믿을 더 나누어야 한다는 것과 나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명남)

너무 힘들 때는 손길을 주시지만 게으름 피면 저에게 소중한 것들에 시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믿고 고지할 때가 없을 때 저에게 소중한,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제 달란트는 항상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제가 혼자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영숙)

십자가가 제 삶에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지인을 만나 모임을 갖고 술로 생활 했지만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방탕한 일을 하지 않고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권영아)

교회에 다니기 전 삶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진정한 추구를 갈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 생명이요 빛임을 느꼈으며 영적인 삶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양정국)

성경을 읽고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봉사과 섬김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에 다니 수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사랑을 보고 나오는 발견음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발견음이 되도록 항상 나 자신을 깨우며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정수원)

영연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열심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오진)

6개월 과정이란 이야기를 듣고 언제 수료할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날 말씀과 교재를 대하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교재도 좋고 말씀도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 6개월을 다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란 기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지만 주님에 대해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라 행복했습니다. (서희희)

새가족 운영위원회

기존의 새가족 등록 및 양육과정을 강화한 '새가족 운영위원회'가 올해부터 시작되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는 말씀에 충실이 움직이고 있는 그들을 만나보자.

새가족 등록한영부

새가족이 등록하여 총연합회 등록교인이 되는 첫 문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그 사랑으로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부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성정 경보**

새가족 양육부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복음과 진리로 양육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8주 과정의 양육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임은 주일3부예배를 마친 12:10분부터 시작하며 본당 1층의 베다니홀에서 진행됩니다. **권혜민 기사**

새가족 지원부

새가족들이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교구와 부서에 세워진 양육부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등록부와 양육부의 행정적인 면을 통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리 중심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에서 새가족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기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3일(월) ~ 1월 11일(화)	19교구 1팀	이수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총연합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516	이혜림	대학부	7	이혜연
1517	김영혜	고등부	20	이복순A
1518	정유희	대학부	10	김두문
1519	김향진		24	임정희
1520	배영진		1	김정자
1521	임경현	대학부	8	윤여원
1522	박정미	양육반	2	
1523	차지호		23	
1524	이배규	양육반	1	이기순
1525	임신희	중등부	8	박지훈
1526	이광수	중등부	8	조준민
1527	전진경	대학부	1	전은연
1528	윤나희	양육반	6	이세영
1529	송혜선	양육반	12	김성해
1530	박소은	양육반	4	김영구
1531	이수연	양육반	4	
1532	정호환		13	
1533	정한희	양육반	8	김덕필
1534	이지은	청년1부	14	조은비
1535	김혜미		3	김연식

